동태 믿음, 북어 믿음, 생태 믿음

(역대하 16:1~14)

7. 그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8.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9.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10.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 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동태 믿음, 북어 믿음, 생태 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동태 믿음, 북어 믿음, 생태 믿음'
명태에 얽힌 이름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설 밥상에 황태찜이 올라왔습니다. 황태와 북어는 명태를 말린 것인데 황태는 산란기의 명태를 잡아서 겨울철에 얼렸다 말리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강원도 산골지역에서 만든 황태가 유명합니다. 단순히 말린 것은 북어이고 얼린 것은 동태이고 잡은 그대로 상태를 생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에도 동태 믿음과 북어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 상태에서는 믿음의 효과나 힘이 전혀 발휘되지 않는 무늬만 믿음인 상태입니다. 오직 믿음은 생태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요즘 정치판에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살아있고 신선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선 후보자들의 지지도가 사흘이 멀다 하고 발표되고 있지만 대선에서의 결과가 지지도대로 동태나 황태나 북어처럼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선은 뚜껑을 열어봐야만 결과를 알 수 있는 변하기 쉬운 생태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판세가 변화무쌍하고 돌출되는 변수에 따라서 어디로 튈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명태에 얽힌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생각하면서 보기로 합니다. 본문에서는 두 번씩이나 종교개혁을 단행한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르러서 불신앙 가운데 끝마치고 맙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탁월한 남진정책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남 왕국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에서 6킬로미터의 가까운 라마에 성읍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라마는 남쪽과 북쪽의 사람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통과해야만 하는 교통의 요지였고 군사적 전략요충지였습니다. 이곳에 성읍을 세워 남 왕국 유다를 점령하기 위한 전쟁기지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북 왕국 이스라엘로부터 남 왕국 유다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을 막는 초소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사 왕은 다급해졌습니다.

마치 1962년에 피델 카스트로의 지배하에 있던 쿠바가 소련으로부터 미사일기지구축 요청을 허락하여 미국본토에서 불과 14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미국본토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기지가 설치될 위험에 처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네디는 해상 봉쇄령을 내려 소련에서 미사일과 건축자재들을 싣고 오는 상선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소련의 후르시초프는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남 왕국의 아사 왕은 남진정책을 실행 중인 북 왕국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에 외교적으로 맞서게 됩니다. 북 왕국의 동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아람 왕에게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예물을 주며 손을 잡고 북 왕국을 쳐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아람 왕 벤하닷이 북 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서 바아사 왕의 남진정책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라마에 남아있던 건축 자재들을 다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성공적으로 방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견자 하나니가 나타나서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는 하나님의 질책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거하면서 솔로몬 성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아사 왕으로서는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두 번씩이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아사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사 왕의 종교개혁의 영성으로 살 때에 본문의 북 왕국의 침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구스 사람 세라의 백만 대군의 강력한 침공을 받았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불가능한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이나 연전연승을 하고 돌아올 때에 아사랴 선지자가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마음이 승리와 전리품에 묶여버릴 위험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자 과감하게 칠백 마리의 소와 칠천 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리며 승리와 전리품으로부터 마음을 떼어내는 제2의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했던 왕이 구스의 백만 군대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정도의 북 왕국 이스라엘의 군대를 앞에 두고는 아람 왕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사 왕이 믿음을 잘 지켰다면 하나님께서는 북 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의 군대조차도 아사 왕의 손에 붙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이 믿음을 잃게 되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계획들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아사 왕의 믿음이 동태 믿음과 북어 믿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은 구스의 백만 군대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찌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동태처럼 얼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생물 믿음이 있다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또렷하게 바라보는 상태일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마음의 시선은 가장 또렷하게 보고 있는 대상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애 중인 남녀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서로를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물 믿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돈이 또렷하게 보인다면 생물 믿음으로 돈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백만 대군을 무찔렀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믿음은 생물 믿음이 아닌 동태 믿음인데 그 경험 안에 하나님이 갇힌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시선이 첫 번째로 또렷하게 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은 1차 종교개혁 때에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시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율법에서 배웠기에 이론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아사 왕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이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이론에 갇혀버리는 북어 믿음이 되었고, 하나님을 과거의 경험 속에 가두어버리는 동태 믿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현재 살아계신 분으로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토 라마에 성읍을 세우고 있는 북 왕국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의 군대가 가장 또렷하게 보이고 이어서 아람의 벤하닷이 또렷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원수이거나 사건이나 대상 혹은 어떠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상들을 첫 번째로 또렷하게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론도 있고 과거의 경험도 있었지만 동태 믿음과 북어 믿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물 믿음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들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통해 별의별 경험을 다했어도 지금 더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신앙적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은 북어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아무리 풍부한 신앙적 경험이 있더라도 그것은 동태 믿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지나갔는데도 곧바로 물이 없음으로 인해 불평을 했는데, 물이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도 더 또렷한 현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마음을 향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장 또렷하게 보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언제나 생물 관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사 왕은 그 마음의 시선을 북 왕국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의 침입에 빼앗김으로 구스의 백만 대군에 대한 경험을 동태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상태로 얼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배운 많은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 북어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생물 믿음을 유지할 때에 이루시려는 모든 계획들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 왕국 이스라엘의 바아사는 물론이고 아람의 벤하닷도 아사 왕의 손에 붙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이 하나님보다도 바아사와 벤하닷을 실감나게 바라보고 체감하게 되자 하나님의 계획은 중지되었습니다.
이후에 아사 왕은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기에 앞서 의원들에게 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병이 나면 병원에 가지 말고 하나님만 찾아야 될까요?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나면 마음에도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우선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또렷하게 본 후에 병원에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물 믿음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론에 하나님을 가두는 북어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내 몸의 병보다도 우선적으로 또렷이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병원과 의사를 통해서 고쳐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물 믿음을 되찾지 못하고 마음을 병든 몸에게 준다면 믿음은 이론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병든 몸보다 더 우선적으로 또렷이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 왕국 유다의 아사 왕은 북 왕국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의 전진기지보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선해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병든 몸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보며 생물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난 내 몸에 대한 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든 내 몸보다도 적군이 쳐들어온 사실보다도 마음은 먼저 하나님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섭리 안에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믿거나 말거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물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사 왕은 성전을 생활화 했어야 했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의 바아사가 6킬로미터까지 쳐들어와서 라마에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붙잡힐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얼른 깨달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의 연기를 바라보고, 또한 성전 앞에 서있는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를 보는 것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대로 쳐들어온 적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세우실 것을 믿으며 나는 어린양과 함께 상번제에서 죽는 것입니다. 바아사 왕의 침략을 하나님보다도 우선적인 현실로 믿고 있는 나의 마음 상태를 어린양과 함께 죽이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난 몸을 하나님보다 우선적인 현실로 보는 마음 상태를 어린양과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은 드디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백합화를 보실 때에도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또한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실 때에도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었고, 풍랑을 만난 배에서도 하나님을 보셨기에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항상 육체로 느껴지는 세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육체가 만나는 상황과 대상들을 마음으로 먼저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죽이는 십자가 생활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지금 급박한 일이 생기면 마음의 시선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경험 속에 갇혀버리시는 동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온갖 신앙적 지식을 다 알고 있더라도 육체로 만나는 일들에 시선을 빼앗길 때에 북어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하나님을 먼저 또렷하게 보아야 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생물 믿음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적 기질은 끊임없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물 믿음 대신에 동태 믿음과 북어 믿음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극복하고 생물 믿음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시선이 언제나 살아있는 생물 믿음으로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